

# 도심생태공원하천으로 재탄생

### 남원 광지천

남원시내를 가로 흐르는 도심하천 광지천이 6년 동안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남원시는 오는 5월 지난 2013년부터 총사업비197억원(국비 118억원, 지방비 79억원)을 들인 광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지천은 상류지역에 밀집된 축사 시설과 농경지 등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남원시는 '아생동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시민들과 함께 광지천 살리기에 나섰다.

먼저, 향교동 구암교 상류에서 용정동 용갈교까지 양안 2.3km 구간을 3개 지구로 나눠 새돌과 물고기가 뛰어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퇴적된 오·폐수 슬러지를 제거하고 수질정화수생식물인 노랑꽃창포, 붓꽃, 털부처꽃, 달뿌리풀, 수크령 등 13만 본을 식재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와 함께 오염원을 제거하였다. 둔치에는 갯버들, 귀룽나무, 줄자살나무, 영산홍, 화살나무, 매자나무 등을 심었다. 제방주변에는 조팝나무, 명지나무, 남천, 낙우송, 금계국, 광관나무, 백철쭉 등을 심어 4계절 꽃이 만발하는 향기로운 하천으로 변신시켰다.



남원시내를 가로 흐르는 도심하천 광지천이 6년 동안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낮은 보와 낙차공도 철거했다. 이 곳에는 하상을 보호하고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어울형 낙차공을 재가설해 물고기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확립화된 콘크리트 호안은 자연 친화적인 조경석으로 대체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다.

향교보에서 국도17호선 용정교를 잇는 2지구에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천혜의 지형적 조건을 갖춘 자연 생태홍수터로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생태홍수터에는 저서동물과 양서류, 어류, 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2만4,000cm를 담수하는 향교보를 설치했다. 특히, 인공섬(하중도), 호박돌 부설, 여울, 자연형 수제, 친환경 저수호안, 어도, 햇대, 인종늪지 등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적용해 수생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질개선 공법도 적용해 자연정화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7만9,000㎡의 생태공원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체험 공간과 휴식, 산책, 전망 등 여가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했다.

또한 하천 법면의 유채꽃, 붓꽃, 싸스타데이지, 금계국, 코스모스, 구절초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 생태공원의 위상을 높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 읍면사무소 기능보강사업 박차

### 임실군, 군청사 등 13개소 주민편의 공간으로 탈바꿈

임실군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각종 민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바로미터인 군청사를 비롯,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극대화 시키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군청사와 지역별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에 대한 청사 기능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청사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노후화된 청사를 쾌적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본청을 비롯해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8억 27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군은 지난 달부터 임실읍, 삼계면, 강진면, 지사면사무소 등 4개 청사를 대상으로 문화강좌실 개선, 청사증축, 도색 및 방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에는 청용면과 신평면, 성수면, 오수면, 신덕면, 관촌면, 덕치면 등 7개 청사의 상도관 및 배수, 재할용품장 비가림 시설, 회의 및 휴게실 등의 보강공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군은 본청을 찾는 지역민과 외부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련된 대외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의회

동 광장 보도블록을 새롭게 바꿔 나간다.

올해 추진되는 청사기능보강 공사는 그동안 노후화된 청사로 인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업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인 임실군은 다양한 건축사업 추진과 더불어 청사보강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일환으로 해피문화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용 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임실N과수가공공장, 옥정호 관리사무소 등 모두 7개에 달하는 건축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읍면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불편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곳인데, 그동안 방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크고작은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매 아리

### 순창군, 학생 건강검진

순창군은 오는 16일부터 6월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786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교사를 직접 방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취학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 귀, 협상, 소변검사(단백뇨, 요잠혈검사), 치과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민혈, B형간염항원 등을 검사하며, 비만 학생은 추가 혈액검사도 시행한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전국실업검도대회, 순창군서 열려

한국실업검도연맹(회장 김재철)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검도회(회장 임영석)가 주관하는 제22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가 오는 14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순창군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사전 경기력 분석을 위해 시·도 체육관계자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경기일정을 보면 대회 1일째인 14일은 3단부, 5단부, 6단부 개인전 대회 2일째인 15일은 4단부 개인전, 여자부 개인전 및 단체전이 대회 3일째인 16일은 통합부 개인전, 단체전 예선, 마지막날 17일은 남자부 단체전 8강 및 결승, 시상식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순창군이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희망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우선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춘향제 대표행사 '길놀이' 진행 예정 5월 19일... 이색 퍼포먼스 등 풍성한 볼거리 제공

제88회 춘향제 대표행사중 하나인 길놀이가 5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렬 구간은 약 1.7km로 용성초등학교에서 출발해 SC제일은행 사거리~국민은행 사거리~광한루원 서문~광한루원 앞 방자출판 무대이다.

12일 춘향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춘향제 길놀이 참여팀 모집을, 현재까지 11개팀 500여 명의 시민팀이 자발적으로 접수했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창작춘향제 놀이마루 사업을 통하여 길놀이 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청소년국악예술단 여민락 외 3팀과

춘향선발대회 수상자 카퍼레이드, 외부 초청 전문 퍼포먼스팀까지 30여 개팀 1천명이 길놀이 행진에 참여한다.

올해 주력으로 출연하는 국악예술고등학교의 판소리 춘향형 퍼레이드는 어사행차, 춘향과 몽룡의 만남과 이별, 옥중춘향 등의 춘향가 주요 대목을 입체적으로 재현하여 한 편의 공연과 같은 길놀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문화컨텐츠인 신관사포 부임행차와 남원지역 시민팀이 해학적으로 준비한 전통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춘향제 길놀이만의 풍부한 스토리와 흥겨운 마당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와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환상적인 버블가 행렬이 비누 방울소를 연출하며, 춘향캐릭터 대형 퍼레이드카를 특별 제작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막걸리 수레를 운영하여 시민들과 시원한 막걸리 및 간식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제일은행 사거리와 방자출판 무대에서는 팀별로 약 2분 동안 각기 다른 퍼포먼스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남원지역 청소년 댄스동아리 연합이 준비한 엠티그레이드 사랑춤이 축제의 짧은 열기를 한껏 발산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